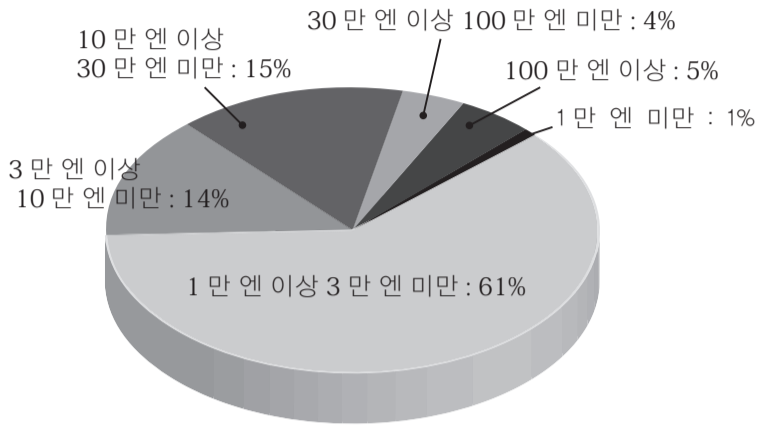


미래를 짚어 질 젊은이들을 위해 작은 일부터 하나씩



[그림] 기부금액의 비율

공익 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는 재일 조선 학생의 취학을 지원하고 국제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의 우호 친선과 국제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7월에 설립됐고 이듬해 12년 2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대표 이사 박영웅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재일조선학생지원회"는 2012년 2월 내각부에서 공익 재단법인 인정을 받고 장학 사업을 보다 폭넓게 실시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들려 주세요.

2012년도에 본 재단에서는 주된 사업인 장학 사업과 일조 대학생 우호 네트워크의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 장학생은 재일 코리안 학생 34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그 중 19명이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의 장학 사업은 2기에 걸쳐 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332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민족 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또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오랜 기간 지급돼온 보조금, 조성금이 중단, 삭감되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조치가 강구된 것은 일본의 각종 장학 단체나 조선장학회 등 공적인 장학금 혜택을 제도

적으로 받지 못하는 많은 재일 코리안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환영과 폭 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귀 재단의 활동에는 어떤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일 동포, 일본 분들, 해외 거주 동포들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협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 두루미 재단의 과학 기술 고문과 중국의 청화대학 객원 교수 등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사업에 꼭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97건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집회에서 총 2,800만 엔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사이에 마음이 흐뭇해지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남성은 어려운 정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재일 조선 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본인의 양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스스로 호소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익 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대표 이사 박영웅 씨

[표 1] 2013년도 장학생 (채용 대상)

	지급 방법	정원	합계
고등학생	급부 12만 엔	27명	324만 엔
대학생	대여 24만, 48만 엔	16명	576만 엔
대학원생	급부 36만 엔	5명	180만 엔

게 배포하고 본 재단의 모금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수의(隨意) 사항이지만(가능하면) 어느 정도 소리가 울리지 않는 금액으로 응해 주셨으면(*동전이 아닌 지폐로 부탁한다는 의미) "는 요청에 의해 많은 일본 분들의 "양심"이 우리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 2013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간 미래를 짚어 질 젊은이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수행해 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리 학교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의 가정이고고 무상화 제도에서의 적용 제외 및 공적 보조금, 조성금의 삭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곤궁에 빠져, 중퇴라도 하게 되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밤에도 잠들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주고 싶다는 일심이며, 재단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2013년도 장학 사업은 장학금 규모를 48명으로 하고 총 1080만

엔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내역으로는 고등학생 (급부 12만 엔) 27명, 대학생 (대여 24만 엔, 48만 엔) 16명, 대학원생 (급부 36만 엔) 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따라서 기금 액수 목표를 1500만 엔으로 하고, 다양한 선전, 모집 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 기부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 분이 많습니까?

2011, 2012년 2년 동안에 개인, 법인, 단체, 집회 이름으로 받은 197건의 기부 금액의 내역은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건당 3만 엔 이하의 기부금이 대부분이며, 10만 엔 미만의 기부금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의 고액 기부자의 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려고 저변이 넓은, 수많은 작은 양심과 선의에 의해 재단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12년 6월에 공익 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는 새로운 기부 세금 제도에 근거하는 "세액 공제" 적용 법인으로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액 공제"는 공익성이 높은 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적

용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본 법인의 기부 내용은 신고서에 영수증을 첨부함으로써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이 감액됩니다.

【세액 공제】 기부금에서 2천 엔을 뺀 금액의 40%를 소득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25%가 한도)

【소득 공제】 기부금에서 2천 엔을 뺀 금액을 연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40%가 한도)

표 2는 기부금 공제에 의해 감액되는 세금의 기준입니다. (대상: 개인 기부)

어디까지나 기준이므로 참고로 봐 주십시오.

■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 등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현재,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세계와 일본, 재일 사회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톱 애슬리트, 톱 아티스트 등의 인재 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본 재단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더욱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따뜻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재일 조선인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재일 조선인 학생"이란 국적이 의해서가 아니라, 출신이 조선 반도에 있고 현재 일본에 영주하는 학생

[표 2] 기부금 공제에 의해 감액되는 세금의 기준 (대상: 개인 기부)

연수	300만 엔		500만 엔		700만 엔		1000만 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2만 엔	900	7200	1800	7200	3600	7200	3600	7200
5만 엔	2400	11250	4800	19200	9600	19200	9600	19200
10만 엔	4900	11250	9800	32800	19600	39200	19600	39200
30만 엔	14900	11250	29800	32800	59600	80500	59600	119200
50만 엔	18000	11250	41800	32800	94400	80500	99600	199200
100만 엔	18000	11250	62600	32800	144500	80500	199600	214000

공익 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홈페이지 <http://zainichisienkai.or.jp/>

기부금의 불입처

미스비시도쿄 UFJ 은행 다카노다이출장소 (三菱東京UFJ銀行鷹の台出張所)

구좌번호: (보통예금) 0039619

口座番号: (普) 0039619

구좌명: 공익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口座名義: 公益財団法人在日朝鮮学生支援会